

#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심 지각과

## 신혼기 결혼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Effect to Attachment to Family-of-origin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Newly-Wedded Marital Adjustment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족복지 전공

석사 임유진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박정윤\*

교수 김양희

Dept. of Family Welfare & Housing Environment, Chung-Ang Univ.

Master : Lim Yu-Jin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Jeong-Yun

Professor : Kim Yang-Hee

---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ts, which has effect on the newly-wedded marital adjustment.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analyzing attachment to parents,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newly-wedded marital adjustme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explored the relationships influences among these influences th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6 in the newly-wedded couples with less than 5 years since of marriag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of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ccording to attachment to parents revealed that, the group with stable attachment to parents showed the more a smoother adjustment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spouses after marriag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marital adjustment according to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indicated that, the higher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howed the related to higher marital adjustment.

---

▲주요어(Key Words) : 결혼 적응(marital adjustment), 애착(attachment),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

#### I. 문제제기

결혼은 인류에게 존재하는 오래된 제도 중의 하나로서 시대

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변화되어 왔다. 최근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증가, 이동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결혼율 저하와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형태, 기능, 가치관 등이 다양화되면서 변화에 대한 탄력적으로

---

\* 교신저자 : 박정윤 (E-mail : pjy4838@cau.ac.kr)

적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는 부부관계를 다양한 양상으로 이끌고 있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1994년 6만 5천명이었던 이혼 건수가 2006년 12만 5천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조이혼율은 2.6건으로 OECD 가입국 중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는 첫 번째로 높은 이혼국으로 되었다(통계청, 2007). 이혼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로서 2000년 40.1%에서 2006년 현재 49.7%를 차지하며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006년 동거기간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0-4년 동거기간이 26.5%였고, 5-9년 동거기간은 21.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통계청, 2007) 신혼기 부부의 성격적 적응의 실패가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당사자들의 결혼적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라고 할 수 있다. 결혼당사자가 부모와의 관계, 원가족 부모의 결혼생활은 결혼적응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최주희, 2000; Couillard, 1990). 즉, 자녀가 최초로 접하는 타인이 부모로서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 성인자녀의 결혼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또다른 타인임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원가족 부모의 결혼이 행복할수록 성인자녀들이 자신의 결혼에 잘 적응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부부관계를 지켜 보면서 결혼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결혼생활의 경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원가족과의 관계는 결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 체계론자들은 애착과 독립성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가족원간에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원가족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형태가 후일 자녀의 결혼생활에서도 반복되어짐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결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혼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을 통해 부부라는 새로운 중요한 관계 기반을 확립하고, 이전까지의 역할과는 다른 부부로서의 역할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서로의 생활양식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갖게 된다. 또한 신혼기 부부는 원가족과의 관계보다 독립된 주체로서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신혼기 적응에 실패하는 부부가 이혼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2). 그러므로 신혼기는 가족의 탄생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족 주기의 삶의 질과 행복에 연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어느 시기보다도 건강한 가정과 삶의 기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 전 요인과 결혼 후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가족간의 유대가 중시되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중요하고, 신혼기

이기 때문이기 결혼 전의 자녀에게 미치는 원가족과의 관계가 영향력이 더 강하다. 그래서 미혼 자녀 뿐 아니라 기혼 자녀는 지속적으로 원가족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혼한 부부도 심리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내기 어려우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원가족에서의 과거 경험에 따라 반복하여 반응하게 된다(Stinnett, Walters & Kaye, 1984). 즉 원가족과의 관계는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는 신혼기 가족에게 의사소통 유형이나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인이 된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 내에서 성장한 개인은 새로운 가족의 형성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 인해 관계에서의 만족감을 높게 지각할 수 있고, 보다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 원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높고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분화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Cunnington, 1991; 전춘애, 1994)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Wilcoxon & Hovestadt, 1983)으로 나타나 원가족 경험은 남편과 부인 모두 공통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김현정, 1999). 결국 원가족의 경험은 아동기부터 결혼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및 가족 전체에 걸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써 결혼 생활과 적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혼기 부부 대상의 연구는 부부갈등(김효정, 2003; 박영애, 2004)과 의사소통(방현주, 2002; 허순례, 2004), 성(김입영, 2002; 강말숙, 2003)과 관련한 연구가 많으며 결혼 만족이나 부부 적응과의 상관성은 갈등(조유리, 2000; 배미자, 2003), 의사소통(정미영, 2002; 김소영, 2003), 성(고정애, 2004; 김진영, 2005), 스트레스(장춘미, 2001; 최유경, 2002) 등 결혼 후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으로 치우쳐져 있어 가족주기를 고려하거나, 원가족 관련 요인이 신혼기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또한 원가족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신혼기 부부로 특정 주기를 고려하기보다는 기혼부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혼 만족이나 건강성에 미치는 연구(김태현·김경자, 2004; 권정란·이인수, 2006, 김현재, 2007)와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원가족건강성과 이성 관계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전영주, 2002; 조은수, 2007)에 치우쳐져 있어 신혼기 부부의 원가족 관련 요인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가족 관련 요인이 신혼기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고자 하여 먼저, 부모와 애착정도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부부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버지와의 애착이 부부 적응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신혼기 부부의 결혼 전의 변인이 결혼 후 부부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밝힘으로써 부부 결혼적응은 한 특정 주기에서의 단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연속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이해를 도와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 관계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개인과 가족의 발달 과업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와의 애착수준에 따라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따라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고찰

### 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부부 결혼적응

애착은 애착 대상과 선택적이고 지속적인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으려는 성향이며 안정감을 지속시키는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애착은 여러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져왔는데,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애착을 심리성적 발달과 대상관계 발달로 설명하고 에릭슨은 영아와 어머니와의 수유과정에서 애착관계가 이루어지며 신뢰감 형성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애착체계의 목표가 단순한 물리적인 근접성이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넓은 의미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숙령, 1997).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전 생애동안 지속되고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발달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애착은 아동의 발달, 적응 뿐 아니라 성인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애착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신혼기의 부부 적응에도 영향력 있는 변수로 설명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기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애착은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에게 근원적인 신뢰감과 자신감을 발달시켜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한다(Ainsworth, 1972). 보울비는 안정된 애착의 발달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적응의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즉 성인도 신뢰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가장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성인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며 사회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Kenny, 1987; Kobak & Scerry, 1988; 김소라, 2004 재인용).

심리적 독립은 청년기의 우선적인 발달과업으로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감을 얻는 심리내적인 과정을 말한다(Josselson, 1988). 가족체계이론에서도 분리-개별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미누친(1974)과 보웬(1978)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구별하기도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에 속해 있다는 가족친밀감을 유지하기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적응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분리감과 친밀감 모두를 중요하게 보았다. 자녀의 심리적 독립이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성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청년기의 분리과정은 부모로부터 자신을 점차 분화시켜가는 가운데 자기정의를 획득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해 가는 통합적인 역할을 하기에 청년의 심리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Sullivan & Sullivan, 1980).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청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러한 2차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문제가 생겨,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허은희, 2004). 이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인 가족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신혼기 부부의 상호 적응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과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년과 성인이 사회생활과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준엽, 1995; Beyer & Goossens, 2003).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지나친 정서적 의존은 이성교제의 어려움과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원활한 이성교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운경, 2004). 또한 Moore(1987)는 부모와의 분리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적 복지상태가 높았으며 특히 남자 대학생의 경우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분리가 독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몇몇 연구(Hill & Holmbeck, 1986; Josselson, 1988)에서 성인의 적응적인 기능을 위해 가족관계 안에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레이스는 적응력이 높은 가족에서의 상호작용은 친밀도와 개별화가 모두 높았으며 역기능적 가족에서는 애착 또는 분리의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발달되어 있고 만성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에서는 애착과 분리가 모두 낮게 발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조화롭게 발달되어있는 개인이 사회적 적응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부부는 상호 적응이 중요한 신혼기에 원만한 적응을 해내리라 기대할 수 있다.

## 2. 부부의 결혼적응

부부 결혼적응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제공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가족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되고 이후의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 결혼적응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Spanier와 Cole(1976)은 부부 적응을 결혼생활에서 겪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부부사이의 긴장과 개인적 불안, 결혼만족도, 부부간의 응집도, 결혼생활에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도 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Wells(1984)는 결혼생활에서 드러나는 부부간의 차이점에 대해 상호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 개인의 인성을 결혼생활이나 성인생활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나가는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 결혼생활에서 요구되는 일상적 과업들을 학습해 가는 과정, 두 사람의 독자적 생활양식을 융합하는 과정 등으로 부부생활 적응을 개념화하였다. 국내의 정의를 살펴보면, 강은령(1989)은 부부 결혼적응을 결혼생활의 갈등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려는 부부의 노력이라고 하였으며, 서병숙과 정혜은(1994)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할 때 부부 결혼적응은 결혼생활에서의 갈등과 불일치를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만족할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상호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부 결혼적응은 결혼생활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일치를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고 결혼생활에서 만족함과 부부간의 결합을 위해 추구하는 부부의 행동적 또는 정서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은 변화를 겪게 되며 각 주기의 발달 과업에 맞는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은 가족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혼기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 서로의 성격과 생활 습관에 대한 이해와 부부로서의 결혼생활의 적응이 주된 문제로서, 부부 두 사람의 목표와 상호 수용적인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발달과업이 된다. 이 시기의 부부관계는 결혼생활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이며, 적응에 실패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신혼기 부부관계는 가족의 핵심이며 기본이 되는 중요한 관계로 부부는 서로 상이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상호 조정과 타협은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신혼기 부부의 상호 적응이 중요한 발달 과업임을 알 수 있다.

부부 결혼적응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부부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외 원가족 변인, 상호작용 변인들이 있다. 원가족 관련변인과 결혼적응과 관련연구(최주희, 2000; 이현희, 2002)를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자란 부부가 높은 부부 적응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고, 원가족의 정서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자란 부부의 적응 수준이 낮아서 원가족의 정서수준과 부부 적응도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자기 분화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다(최주희, 2000)는 연구와 함께, 결혼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식 등의 영향력이 연구되기도 하였다(이현희, 2002).

원가족과 결혼 만족도, 결혼 안정성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원가족과의 애착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경험하고 있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원가족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Forrest, 1991). 정은희(2004)는 원가족과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정서적 단절과 가족투사와 관련한 연구에서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Skowron & Friedlander, 1998; 전춘애, 1994; 한미향, 1999). 부부가 원만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높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도 자율감을 강화시켜 나가야 친밀하면서도 가족구성원 개인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 가능한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원가족은 부부의 결혼 만족, 안정과 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한국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혼기 부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데 한국 가족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자녀의 결혼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결혼은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의 정도는 신혼기 부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결혼생활을 하는데 중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한 지 만 5년 이하의 신혼기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기준은 선행연구에서(김혜선, 1992)에서 다루어진 것과 같이 결혼지속년수를 만 5년 이하로 한정된 것은 이 시기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에게 성격 및 생활관습에서의 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가족의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자로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의 표집과 눈덩이 표집방식을 병행하여 반송용 봉투를 동반한 우편조사 전자 메일 조사,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N	%	변 수	집 단	N	%
연 령	20세~24세	16	7.4	성 별	남 성	101	46.8
	25세~29세	75	34.7		여 성	115	53.2
	30세~34세	105	48.6	직 업	전문직	29	13.5
	35세~39세	20	9.3		관리직	9	4.2
종 교	기독교	90	41.8		사무직	69	32.1
	불 교	26	12.1		생산직	20	9.3
	천주교	18	8.4		서비스직	54	25.1
	무 교	81	37.7	전업주부	34	15.8	
학 령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	16.2	소 득	100만원 미만	8	3.7
	대학교 졸업	143	66.2		100-200만원 미만	38	17.6
	대학원 졸업	27	12.5		200-300만원 미만	61	28.2
	기 타	11	5.1		300-400만원 미만	65	30.1
					400-500만원 미만	22	10.2
			500만원 이상		22	10.2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5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0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어 85.3%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총 21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01명으로 46.8%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115명으로 53.2%를 차지하여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분포는 30~34세가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5~29세가 34.7%, 35~39세가 9.3%, 20~24세가 7.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41.8%, 무교는 37.7% 불교 12.1%, 천주교 8.4%였으며 직업의 분포는 사무직이 32.1%, 서비스직 25.1%였고 가정주부가 15.8%, 전문직이 13.5%, 생산직 9.3%, 관리직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6.2%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16.2%, 대학원 졸업이 12.5%로 대졸자가 가장 많았으며 조사 대상자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의 분포는 300~400만원 미만이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이 28.2%로 높았으며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 각각 10.2%를 차지해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았다.

## 2. 측정 도구 구성

### (1) 부부 결혼적응

부부 결혼적응은 결혼생활에서 만족함과 부부간의 결합을 위해 추구하는 부부의 행동적 또는 정서적 과정으로, 부부 결혼생활에서 다각적 측면의 질과 적응상태로 정의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결혼 생활의 질과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panier가 개발한 부부 적응척도(DAS; Dyadic Adjustment Scale)를 사용하였는데, 김득성(1986)이 번역하여 사용한 DAS

척도를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Likert 식 6점 척도이며 부부 일치도, 부부 만족도, 부부 결합도, 애정표현도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부부 일치도는 재정관리, 인생관 및 가치관, 여가생활 등에 대한 부부의 일치정도를 의미하고 부부 만족도는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몰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부부 만족도를 의미한다. 부부 결합도는 부부가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공동의 흥미를 교환하고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애정표현도는 애정표현과 성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부 적응의 신뢰도 계수는 .919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부부 만족 .840, 애정 표현 .788, 부부 결합 .814, 부부 일치 .825로 나타났다. 부부 적응도의 평균은 3.77, 표준편차는 .49였으며 각 하위요인의 평균은 부부 만족 4.02 (SD=.57), 애정표현 3.77(SD=.68), 부부 결합 3.56(SD=.84), 부부 일치는 3.67(SD=.49)로 나타났다.

### (2) 부모와의 애착

애착은 애착 대상과 안정감을 지속시키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인 애착으로 정의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와 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애착 척도 (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로 정정숙 (1994)이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고 소외감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를 측정하며 신뢰감은 개인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 안전성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신뢰감과 의사소통 문항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의 점수를 뺀 것이 개인의 애착점수가 되며 평균값을 사용하여 안정 집단과 불안정

집단을 분류한다. 즉 전체 평균값보다 점수가 높은 집단인 경우 안정성 수준이 높아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신뢰도 계수는 .919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829, 신뢰감은 .787, 소외감은 .800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애착 평균은 2.67(SD=.44)였고 하위 요인의 평균은 의사소통이 3.78(SD=.64), 신뢰감이 3.93(SD=.58), 소외감이 2.28(SD=.62)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애착 신뢰도 계수는 .917 이었고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860, 신뢰감은 .825, 소외감은 .722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애착 평균은 1.92(SD=.60)이었고 하위 요인의 평균은 의사소통이 3.53(SD=.69), 신뢰감이 3.73(SD=.65), 소외감이 2.33(SD=.623)으로 나타났다.

### (3)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은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성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자아발달이론에 근거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한 심리적 독립척도(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로 정은희(2004)가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독립은 갈등적 독립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 불신, 원한, 책임감, 죄의식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독립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 신뢰도 계수는 .892였고 평균은 3.81(SD=.53)이었다.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 신뢰도 계수는 .881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68(SD=.53)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적응과 하위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와의 애착은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모와의 애착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 (1)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부모와의 애착에 따른 신혼기 부부 결혼적응의 차이는 애착과 각 하위 요인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3집단으로 분류하여

<표 2>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하위 요인 차이

변 수	구 분	N <sup>1)</sup>	전 체	부부 만족	애정 표현	부부 결합	부부 일치
			M <sup>2)</sup> (S.D)	M(S.D)	M(S.D)	M(S.D)	M(S.D)
모 애착	저	66	3.51(.48) <sup>a</sup>	3.74(.60) <sup>a</sup>	3.37(.79) <sup>a</sup>	3.24(.80) <sup>a</sup>	3.48(.53) <sup>a</sup>
	중	66	3.74(.38) <sup>b</sup>	3.99(.47) <sup>b</sup>	3.81(.48) <sup>b</sup>	3.32(.78) <sup>a</sup>	3.68(.40) <sup>ab</sup>
	고	84	4.01(.46) <sup>c</sup>	4.26(.51) <sup>c</sup>	4.05(.56) <sup>b</sup>	4.01(.72) <sup>b</sup>	3.80(.49) <sup>b</sup>
	F값		23.625***	18.059***	22.533***	23.358***	8.417***
의사 소통	저	71	3.54(.46) <sup>a</sup>	3.76(.60) <sup>a</sup>	3.42(.79) <sup>a</sup>	3.27(.60) <sup>a</sup>	3.52(.54) <sup>a</sup>
	중	59	3.75(.40) <sup>b</sup>	4.06(.47) <sup>b</sup>	3.81(.43) <sup>b</sup>	4.06(.47) <sup>a</sup>	3.65(.37) <sup>ab</sup>
	고	86	3.98(.47) <sup>c</sup>	4.20(.53) <sup>b</sup>	4.03(.59) <sup>b</sup>	4.20(.53) <sup>b</sup>	3.80(.50) <sup>b</sup>
	F값		18.206***	13.615***	18.707***	18.473***	6.645**
하위 요인 신뢰감	저	72	3.56(.48) <sup>a</sup>	3.81(.54) <sup>a</sup>	3.49(.76) <sup>a</sup>	3.31(.78) <sup>a</sup>	3.49(.50) <sup>a</sup>
	중	74	3.75(.46) <sup>a</sup>	3.98(.57) <sup>a</sup>	3.79(.55) <sup>b</sup>	3.38(.85) <sup>a</sup>	3.70(.42) <sup>b</sup>
	고	70	4.01(.50) <sup>b</sup>	4.27(.50) <sup>b</sup>	4.03(.60) <sup>b</sup>	4.02(.69) <sup>b</sup>	3.80(.52) <sup>b</sup>
	F값		17.644***	13.659***	12.840***	18.064***	7.742**
소외감	저	71	4.02(.41) <sup>c</sup>	4.27(.58) <sup>c</sup>	4.08(.45) <sup>c</sup>	4.03(.46) <sup>c</sup>	3.81(.44) <sup>b</sup>
	중	66	3.77(.37) <sup>b</sup>	4.04(.44) <sup>b</sup>	3.76(.58) <sup>b</sup>	3.52(.72) <sup>b</sup>	3.67(.39) <sup>ab</sup>
	고	79	3.55(.53) <sup>a</sup>	3.77(.64) <sup>a</sup>	3.49(.81) <sup>a</sup>	3.18(.83) <sup>a</sup>	3.54(.58) <sup>a</sup>
	F값		20.926***	17.158***	16.391***	23.267***	5.800**

\*\*p<.01, \*\*\*p<.001

1) 사례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제외하였으므로 나타난 차이임.

2) 다른 알파벳 위첨자는 Scheffe 사후검증(P<.05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라 부부 결혼적응은 유의미한 차이( $F=23.625$ ,  $p<.001$ )를 나타냈는데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신혼기 결혼적응도는 높게 나타났다. 즉, 신혼기 부부가 원가족 내의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할수록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전체적인 결혼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애착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 $F=18.206$ ,  $p<.001$ ), 신뢰감( $F=17.644$ ,  $p<.001$ ), 소외감( $F=20.926$ ,  $p<.001$ )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애착 하위요인 모두가 부부 적응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애착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만한 의사소통과 상호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한 낮은 소외감과 신뢰감이 적응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부부간의 애착도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 적응 능력에 차이가 나타난다(강차연·박경, 2001)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가능하다.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라 결혼 적응의 각 하위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와의 애착은 부부 만족에 유의미한 차이( $F=18.059$ ,  $p<.001$ )를 나타냈고, 의사소통( $F=13.615$ ,  $p<.01$ ), 신뢰감( $F=13.625$ ,  $p<.001$ ), 소외감( $F=17.158$ ,  $p<.001$ )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며 소외감 정도가 낮을수록 현재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애정 표현 역시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유의미한 차이( $F=22.533$ ,  $p<.001$ )를 나타냈으며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F=18.707$ ,  $p<.001$ ), 신뢰감( $F=12.840$ ,  $p<.001$ ), 소외감( $F=16.391$ ,  $p<.001$ )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어머니와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소외감 정도가 낮아서 가족 내에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집단이 새로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애정표현을 시도하고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여 적응력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부 결합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은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 $F=23.358$ ,  $p<.001$ )가 있었으며 각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 $F=18.473$ ,  $p<.001$ ), 신뢰감( $F=18.004$ ,  $p<.001$ ), 소외감( $F=23.267$ ,  $p<.001$ )에서 부부 결합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의 높은 신뢰감과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어머니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라고 지각한 경우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능력을 갖추고 부부관계에서도 공동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흥미나 관심거리를 함께 공유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부부 일치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결혼적응에서의 유의미한 차이( $F=8.417$ ,  $p<.001$ )가 나타났다. 애착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애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부 상호간의 일치감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하위 요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의사소통( $F=6.645$ ,  $p<.001$ ), 신뢰감

( $F=7.742$ ,  $p<.01$ ), 소외감( $F=5.800$ ,  $p<.01$ )에 따른 부부 일치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소통, 신뢰감의 점수가 높고 소외감 변인의 경우 점수가 낮은 집단이 부부결합이나 일치감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어머니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갖고 배제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수록 부부 상호간의 강한 결속감을 갖고,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일치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아버지와의 애착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아버지와의 애착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버지와의 애착에 따른 결혼적응은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른 결혼적응의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 $F=19.157$ ,  $p<.001$ )가 있었다. 원가족 내의 아버지와의 애착이 가장 안정적인 집단의 결혼적응도 평균은 3.98이었고, 애착이 낮은 집단의 평균은 3.52로 나타나서 아버지와의 애착도 성인자녀의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F=6.783$ ,  $p<.01$ ), 신뢰감( $F=13.719$ ,  $p<.001$ ), 소외감( $F=24.750$ ,  $p<.001$ )에 따른 결혼적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 하위 요인 모두 결혼적응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의 관계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진회경 1998)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며 소외감의 정도가 낮을수록 부부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애착정도가 부부적응의 하위요인별 집단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아버지와의 애착은 부부만족에 유의미한 차이( $F=11.893$ ,  $p<.001$ )를 보였고, 의사소통( $F=6.100$ ,  $p<.01$ ), 신뢰감( $F=11.916$ ,  $p<.001$ ), 소외감( $F=19.980$ ,  $p<.001$ )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며 소외감 정도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부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애정표현은 아버지와의 애착에서 유의미한 차이( $F=12.682$ ,  $p<.001$ )를 나타냈으며 의사소통( $F=4.225$ ,  $p<.05$ ), 신뢰감( $F=9.085$ ,  $p<.001$ ), 소외감( $F=20.345$ ,  $p<.001$ )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아버지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소외감 정도가 낮은 집단은 이성과의 적절한 관계유지에 대한 모델을 아버지를 통해서 학습됨으로써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애정표현을 할 수 있으며, 성생활의 의미와 그에 따른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부부 결합에서 아버지와의 애착은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 $F=12.682$ ,  $p<.001$ )를 나타냈으며 각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 $F=6.319$ ,  $p<.01$ ), 신뢰감( $F=8.071$ ,  $p<.01$ ), 소외감( $F=24.065$ ,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와

<표 3> 아버지와의 애착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하위 요인 차이

변 수	구 분	N <sup>1)</sup>	부부 만족	부부 만족	애정 표현	부부 결합	부부 일치	
			M(S.D)	M(S.D)	M(S.D)	M(S.D)	M(S.D)	
부 애착	저	69	3.52(.55) <sup>a</sup>	3.78(.68) <sup>a</sup>	3.45(.84) <sup>a</sup>	3.14(.85) <sup>a</sup>	3.49(.56) <sup>a</sup>	
	중	66	3.78(.43) <sup>b</sup>	4.05(.45) <sup>b</sup>	3.84(.51) <sup>b</sup>	3.60(.79) <sup>b</sup>	3.63(.49) <sup>a</sup>	
	고	81	3.98(.436) <sup>c</sup>	4.20(.47) <sup>b</sup>	3.97(.54) <sup>b</sup>	3.89(.72) <sup>b</sup>	3.84(.35) <sup>b</sup>	
	F값		19.157***	11.893***	12.682***	16.647***	10.630***	
의사 소통	저	71	3.63(.52) <sup>a</sup>	3.84(.63) <sup>a</sup>	3.58(.84) <sup>a</sup>	3.36(.93) <sup>a</sup>	3.58(.51) <sup>a</sup>	
	중	72	3.76(.60) <sup>ab</sup>	4.05(.52) <sup>ab</sup>	3.85(.55) <sup>b</sup>	3.48(.80) <sup>a</sup>	3.62(.51) <sup>ab</sup>	
	고	73	3.92(.35) <sup>b</sup>	4.16(.49) <sup>b</sup>	3.86(.058) <sup>b</sup>	3.83(.72) <sup>b</sup>	3.79(.44) <sup>b</sup>	
	F값		6.783**	6.100**	4.225*	6.319**	3.589**	
하위 요인	신뢰감	저	69	3.61(.51) <sup>a</sup>	3.87(.63) <sup>a</sup>	3.53(.82) <sup>a</sup>	3.33(.82) <sup>a</sup>	3.56(.50) <sup>a</sup>
		중	72	3.69(.63) <sup>a</sup>	3.91(.51) <sup>a</sup>	3.75(.58) <sup>ab</sup>	3.48(.83) <sup>a</sup>	3.60(.53) <sup>a</sup>
		고	75	3.99(.44) <sup>b</sup>	4.26(.47) <sup>b</sup>	3.99(.54) <sup>b</sup>	3.86(.79) <sup>b</sup>	3.84(.39) <sup>b</sup>
	F값		13.719***	11.916***	9.085***	8.071***	7.571**	
소외감	저	82	3.99(.40) <sup>b</sup>	4.23(.44) <sup>b</sup>	4.06(.44) <sup>c</sup>	3.96(.74) <sup>c</sup>	3.79(.44) <sup>b</sup>	
	중	59	3.82(.39) <sup>b</sup>	4.11(.47) <sup>a</sup>	3.80(.57) <sup>b</sup>	3.57(.77) <sup>b</sup>	3.71(.40) <sup>a</sup>	
	고	75	3.50(.52) <sup>a</sup>	3.72(.63) <sup>a</sup>	3.42(.81) <sup>a</sup>	3.12(.79) <sup>a</sup>	3.50(.57) <sup>a</sup>	
F값		24.750***	19.980***	20.345***	24.065***	7.758**		

\*p<.05, \*\*p<.01, \*\*\*p<.001

1) 사례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제외하였으므로 나타난 차이임.

의 안정적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 부부간에서 결속감을 갖고 서로에 대한 일체감을 통해서 효과적인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부 일치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부부 적응(F=10.630, p<.001)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F=3.589, p<.05), 신뢰감(F=7.571, p<.01), 소외감(F=7.758, p<.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애착정도가 신혼기의 부부간 의견조율이나 일치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나타났으나 다른 하위변인의 집단 간 차이값에 비해서 F값이 높지 않아 영향변수로 단정지을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와 모의 심리적 독립점수를 사례수에 따라 3집단으로 분류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4>과 같다.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부 결혼적응도는 유의한 차이(F=5.465, p<.01)를 나타냈는데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결혼적응도가 심리적 독립 수준이 중간인 집단의 결혼적응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독립성이 낮은 집단은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적응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7.978, p<.001),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부부의 결혼적응도가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결혼 적응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탈피하고 자율성을 가질수록 부부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와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부부 만족(F=5.046, p<.01)과 부부 결합(F=7.181, p<.01)이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이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 비해 부부 만족도와 부부 결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정도가 낮음으로 이에 대한 정서적 보상을 배우자로부터 받으려는 기대를 갖게 되고 이는 현재의 부부관계에 대한 지각이나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다음으로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적응의 하위 요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과 마찬가지로 부부 만족(F=7.755, p<.01)과 부부 결합(F=10.048, p<.001)에서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독립 수준이



<표 4>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 하위요인 차이

변 수	구 분	N <sup>1)</sup>	전 체	부부 만족	애정 표현	부부 결합	부부 일치
			M <sup>2)</sup> (SD)	M(SD)	M(SD)	M(SD)	M(SD)
모 심리적 독립	저	72	3.63(.48) <sup>a</sup>	3.86(.62) <sup>a</sup>	3.63(.56)	3.27(.79) <sup>a</sup>	3.59(.52)
	중	74	3.89(.47) <sup>b</sup>	4.15(.54) <sup>b</sup>	3.87(.61)	3.74(.82) <sup>b</sup>	3.75(.43)
	고	70	3.80(.48) <sup>ab</sup>	4.04(.50) <sup>ab</sup>	3.80(.83)	3.68(.84) <sup>b</sup>	3.65(.52)
	F값		5.465**	5.046**	2.310	7.181**	1.987
부 심리적 독립	저	76	3.60(.54) <sup>a</sup>	3.82(.66) <sup>a</sup>	3.62(.63)	3.23(.85) <sup>a</sup>	3.59(.56)
	중	69	3.88(.41) <sup>b</sup>	4.14(.47) <sup>b</sup>	3.85(.55)	3.73(.78) <sup>b</sup>	3.75(.40)
	고	71	3.85(.46) <sup>b</sup>	4.11(.49) <sup>b</sup>	3.85(.82)	3.76(.79) <sup>b</sup>	3.69(.49)
	F값		7.978***	7.755***	2.834	10.048***	2.703

\*\*p<.01, \*\*\*p<.001

1) 사례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제외하였으므로 나타난 차이임

2) 다른 알파벳 위첨자는 Scheffe 사후검증(P<.05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 비해 부부 만족도와 부부 결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정도가 낮을수록 부부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나 부부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 논의 및 제언

현대 사회의 사회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가족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가족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부부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신혼기 가족의 경우 부부간의 관계와 질은 가족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혼기 부부는 원가족 내에서의 생활의 차이, 서로 다른 성격으로 적응상의 문제가 과생될 수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원만한 부부 결혼적응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신혼기 부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적 전환을 겪고 있는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형성하도록 하고자 하여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원가족 부모와의 경험하고 있는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의 수준과 신혼기 부부 결혼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에 따라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원가족 내의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심리적 독립 수준을 유지하는 개인은 신혼기,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에 높은 적응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예비 부부 교육이나 신혼기 부부 교육, 상담 등의 현장에서 현재의 부부관계를 이해할 때 원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부모자녀관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가족 내에서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상호작용 방식이나 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현재 결혼에 영향을 주는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하고 긍정적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원가족 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주의적 성향을 강조하는 한국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원가족과의 관계 재조정은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성인자녀관계는 애정적이며 자율성을 유지하는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를 위한 역할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성인자녀는 부모와 신뢰감에 기초한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적절한 경계선을 형성해 분리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에 따른 결혼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에 따른 결혼적응보다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집단 간 차이가 더 큰 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에 따른 부부 적응의 경우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보다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이 부부 결혼적응의 집단 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개념, 자아통제의 발달을 지원받고 확인받는 주된 근원이 아버지와의 관계이며 어머니는 정서적 관계의 주축을 이루는 존재라는 점에 근거하여 애착 관계에서는 어머니와의 질이, 심리적 독립 관계에서는 아버지와와의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결국 결혼 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의해서 신혼기 부부관계를 예측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신뢰하고 갈등에 대해 건설적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결혼 초기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한편, 아버지애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지 역시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부부관계에 대한 의존이나 기대 정도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정서적 욕구는 배우자를 통해 해소하려 한다면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접근이 단편적으로 원가족과의 문제라는 접근보다는 원가족의 부모 각각과 갖게 되는 문제나 구체적인 문제양상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이나 심리적 독립성에 있어서 동성부모와 이성부모와의 관계 지각 정도에 따라서 부부 결혼적응에 주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으로 추후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신혼기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서 해야 한다.

셋째, 부부 결혼적응의 하위 요인인 부부 일치는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적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신혼기 부부의 일치감, 즉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분석이나 영향변인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견의 불일치 문제는 원가족과의 관계 뿐 아니라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도 충분히 탐색해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 부부 일치감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의 발달적 과업 수행과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돕고자 신혼기 부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애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그리고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 간의 관계를 토대로 이들 간의 영향을 탐색하였고 원가족 요인이 부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혼초기의 결혼적응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적 속성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가정의 중요한 하위 체계인 부부 관계의 질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신혼기 부부의 발달 단계에서 원가족 부모와 기능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평적 관계로 재구조화해야함을 시사한다. 즉, 부모와 친밀하면서도 새로운 신혼기 가족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발달시켜야하는 함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우선 조사 대상이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표집 대상이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중류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혼기 부부의 특성을 우리나라 전체 신혼기 부부로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와 부부 적응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라는 부모 자녀간의 정서

적 관계 외에 부모 자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적 측면 즉, 경제적 또는 서비스 등의 상호의존성을 포함시키는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변인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말숙(2003). 성 상담 프로그램이 신혼기 여성의 성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차연·박경(2001).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51-69.
- 권정란·이인수(2006).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35-56.
- 고정애(2004). 기혼 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관련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득성(1986). Spanier의 결혼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I). 부산대 가정대학연구보고, 12, 55-73.
- 김소라(2004). 부모 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 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 적응관계 연구: 자아존중감, 정서안정성 및 의사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령(1997). 영유아기의 타아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 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김임영(2002).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김경자(2004). 기혼 남성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6(1), 3-35.
- 김혜선(1992). 배우자선택과 결혼적응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1999).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재(2007). 원가족 규칙과 분화 및 양성평등의식이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2003). 기독교인의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신혼부부 갈등해결 방식에 미치는 효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2004). 결혼초기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현주(2002).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미자(2003). 부부갈등대처 및 용서와 결혼만족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정혜은(1994). 배우자 선택과 결혼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연구 12**, 209-227.
-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2). **한국 가정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이준엽(1995). 심리적 독립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2002).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방식이 결혼생활 적응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윤경(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주(2002). 한국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원가족 요인이 불안운 매개로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1)**, 207-221.
- 정미영(2002). 부부의 의사소통 기술훈련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V.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수(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원가족 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 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1994). 자아 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희경(1998).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 및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경(2002). 결혼 초기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주희(2000).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적응 연구: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
- 한미향(1999). 부부의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순례(2004). 크리스천 결혼 초기 부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중심으로. 복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희(2004).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1972). Attachment and Dependency: A Comparison, *Attachment and Dependency*, ed. J. L. Gewritz, Washinton, D. C.: V. H. Winston.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nec*, 16, 427-454.
- Beyers, W., & Goossens, L.(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363-382.
- Bowen, M.(1978). *Family Therapy and Clinical Practice*. N.Y.: Aronson.
- Cunnington, B. D.(1991). *The relationship of origin and one's achievement of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to one's current marital adjustment*. University of Toronto.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8), 26-27.
- Forrest, M.(1991). *Family of origin emotional health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University of Arkansa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8), 26-28.
- Hill, J. P., & Holmbeck, G. N.(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Annals of Child Development*, 3, 145-189.
- Josselson, R.(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rou revisited. in D. K. Lapsey & F. C. Clark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N.Y..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re, D.(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298-307.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246.
- Spanier, G. B., & Cole, C. L.(1976). Toward clarification

- and investigation of marit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6, 121-146.
- Stinnett, N., Walters, J., & Kaye, J. E.(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Y.: Macmillan.
- Sullivan, K., & Sullivan, A.(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93-99.
- Wells, J.(1984). *Choices in Marriage & Family*. Jackson: Piedmont Press, Inc.
- Wilcoxon, S. A., & Hovestadt, A. J.(1983). Perceived health and similarity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dyadic adjustment for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431-434.

- 접수일 : 2008년 07월 02일
- 심사일 : 2008년 08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07일